

아프리카문학의 한국적 수용현황

단순한 번역소개 머물러 아직도 '미지의 대륙'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성작가 나딘 고디머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86년 윌레 소잉카에 이어 검은대륙 아프리카는 두명의 노벨문학상 작가를 탄생시켰다.

오랜 식민지배의 역사에 의해 전통문화와 언어를 말살당했으며 외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네그리튀드' 운동이 시작된 1930년대에 들어서야 대동한 아프리카 현대문학이 그 길지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성과를 얻게 된 요인을 문학평론가 장경렬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프리카 현대문학은 식민, 신식민 지배질서에 대한 비판과 저항, 그리고 그것이 낳은 억압적 상황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민족이 처한 고유의 현실에 깊이 천착하되 그것을 세계사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진실된 인간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아프리카문학의 건강성이 곧 세계문학이 지향해야 할 보편요소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프리카문학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아프리카문학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노벨상 수상시기와는 무관한 70년대 후반부터 비롯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국내 사회과학계의 연구열기와 '서구문학의 정신적 종속을 청산하고 인류사회 전체를 향해서 개방된 자세를 정립'하려는 민족문학론의 본격적 전개가 그 배경.

'제3세계문학'의 일환으로 소개

현재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아프리카 문학 작품 중에는 소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소설들을 국가별 작가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나이지리아의 대표적 소설가 이누아 아체베의 작품.

아프리카 영어문학권의 대변자인 「Black Orpheus」가 창간된 이후 처음 발표된 소설이라는 점에서 서아프리카 창작활동의 효시를 이루는 작품으로 꼽히는 「무너져내리다」(한남철 역, 태창문화사), 독립직후 나이지리아의 정치, 사회의 부패상을 풍자적으로 그렸으며 군사쿠데타를 예견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는 「민중의 지도자」(박태순 역, 한길사)와 기독교의 전파에 대항하는 '이보' 마을의 사제 '에제울루'의 고뇌와 저항을 통해 부족문화의 정신적 근거가 와해되어가는 과정을 밀도있게 그린 「신의 화살」(권명식 역, 지학사) 등 세편이 번역되어 있다.

8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며 시인, 소설가,



국내에 번역소개된 아프리카 문학도서들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개된 아프리카문학은 그동안 일개 모르게 통념화돼 있던 세계문학의 공식을 깨뜨리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우리문학의 방향성 정립에도 유효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양으로 볼 때 우리의 아프리카문학 수용현황은 지극히 일면적이다.

극작가, 연극배우, 비평가, 번역가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윌레 소잉카도 국내에 잘 알려진 나이지리아의 작가. 그의 첫 장편소설인 「해설자들」(권명식 역, 지학사)과 「아케, 그 어린 시절」(설영환 역, 지문사) 등이 번역되어 있다. 정치, 사회, 문화의 격변 속에서 민중들이 겪는 시련과, 지식인들의 타락상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와 고발이 그의 작품의 주요 주제이다.

74년 로터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노벨문학상 후보에 지명되기도 했던 케냐의 대표적 작가 은구기와 시옹오의 작품도 세편이 번역되어 있다. 신생 케냐에서 민중을 배반하고 신식민주의 세력과 결탁한 소수 지배세력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건강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농민과, 민중운동에 헌신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린 「피의 꽃잎」(上下)(김종철 역, 창작과비평사)은 그의 대표 작품. 이밖에 「아이야 울지 마라」와 같은 책에 수록된 「사이 흐르는 강」(김윤진 역,

지학사) 등이 나와 있다.

역시 케냐의 작가인 메자 무왕기의 「바퀴벌레의 춤」(송미루 역, 지학사)은 벌레와 같은 차원으로 떨어져 내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비판과 그런 삶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이 가져다 주는 긴장과 불안, 그 속에서 희생된 흑백 양 인종의 삶을 다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나딘 고디머의 작품도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에 번역 되어 있어 눈길을 끄는데 「가버린 부르조아 세계」(이상화 역, 창작과비평사), 「보호주의자들」(최영 역, 지학사) 등이 그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작가와 작품으로는 알렉스 라 구우마의 「밤의 방황」(민영 역, 태창문화사), 엘런 페이튼의 「울어라 조국아」(최송자 역, 흥성사)(같은 작품으로 「울어라 사랑하는 조국아」(이종구 역, 분도)도 있다), 그리고 J.M. 쿠찌의 「야만인을 기다리며」(표완수 역, 두레) 등이 있다.

이러한 개별작가들의 작품을 독립적으로 소개한 것 외에 '선집'의 형태로 아프리카의 소설작품을 소개한 것도 있다.

'한길세계문학'의 일환인 '아시아·아프리카 소설선'에서는 알제리 태생의 세계적 작가인 모아메드 디브의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박태순 역)을 수록했다. 또한 태창문화사가 기획한 「아프리카 단편소설집」 「영험 있는 나무」(진 플리아 외 저, 이종욱 외 역)에는 사리프 예아스몬, 아비오제 니콜, 진 플리아 등 15인의 단편을 수록하고 있다. 일반 단행본 출판사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문예중앙」이 74년 11월호의 별책부록으로 내놓은 「현대 아프

리카 단편집」 역시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소설을 제외하고 국내에 소개된 아프리카의 다른 장르의 작품은 극히 빈약한 실정.

창작과비평사가 기획하여 출판한 「현대 아프리카 시선」(이종욱 편역)이 세네갈의 시인 다비드 디옵, 나이지리아의 오키 그보, 콩고의 치카야 우 탄시 등 24명의 시 77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세네갈의 시인이자 대통령을 역임했던 레오플드 세다르 생고르의 전작시집 「생고르 시 전작집」(이환역, 지문사) 등이 있다. 이밖에 아프리카의 민요를 주제별로 모은 「아프리카 민요시집」(레오나르 W. 두브 저/ 김선혁 역, 실천문학사)이 아프리카의 구비문학을 수록한 유일한 것으로 눈길을 끈다.

영·불어권 작품에 치중 지적도

기왕에 국내에 번역, 소개되었던 이러한 아프리카문학 작품들은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 작가들의 탁월한 작품이며 아프리카현대문학의 건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통념화되어있던 세계문학의 공식을 깨뜨리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우리문학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도 유효한 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아프리카문학의 국내수용은 지극히 일면적이었던 지적 또한 없지 않다.

외국어대 권명식 교수(스와힐리어과)는 "80년대 중반까지 소개된 아프리카문학의 대부분은 서구의 평단이나 독자들의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영, 불어권 아프리카문학이 대부분이었고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 역시 아프리카문학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영·불문 전공자가 대부분이었다. 아프리카 현대문학에서 영·불어권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문학이 지닌 풍부한 구비문학적 자산과 토착언어로 기술된 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디머의 수상이 가져다 줄 아프리카 문학에의 관심의 파장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아프리카문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다양한 문학을 접한다는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문학의 방향성 모색에서 출발했던 만큼 아프리카문학은 아무리 크게 일어도 결코 유해하지 않을 성 싶다.

—박남정 기자